

2023. 8. 1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31일 오후 15: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

스마트건강과장	채 명 준	2133-7560
가족건강팀장	이 미 점	2133-7576
관련 누리집 (메뉴)	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누리집 (www.mindcare-for-family.kr)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행사 후 제공

### 서울권역 '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' 운영, 난임부부 마음건강 챙긴다

- 시, 강남세브란스병원 내, 송파구 가든파이브 2곳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설치
- 정신과·산부인과 전문의, 임상심리사, 간호사, 정신건강 요원 등 전문가 배치
- 난임부부·임산부·양육 모 대상 전담 상담사 1:1 맞춤형 상담, 프로그램 운영
- SH공사-강남세브란스병원 협약으로 송파센터(송파구 가든파이브) 추가설치
- 오 시장, 7.31 개소식 참석, 현판식 후 현장간담회서 난임부부 심리지원 논의

- 서울시는 난임부부, 임산부, 양육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‘서울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’를 7월 31일 개소한다.
  - 현재 난임부부, 임산부에게 특화된 전문상담 인력과 시설을 갖춘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 6개소 중앙센터 1곳(서울), 권역 5곳(전남, 인천, 대구, 경기, 경북)에 불과하다.
- 시는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, 강남세브란스병원 내 상담실(강남센터), 송파구 가든파이브(송파센터)에 ‘서울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’ 2개소를 설치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.

-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2곳 중 ‘송파센터’는 SH공사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간지원 협약을 체결하고,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송파구 내 접근성이 좋은 가든파이브에 상담실을 추가 설치한 것이다.

### 〈전문가 배치, 난임부부·임산부·양육 모 정신건강 의료지원〉

- ‘서울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’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(센터장)와 산부인과 전문의(부센터장)를 중심으로, 임상심리사, 간호사, 정신건강 전문요원,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난임부부, 임산부, 양육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,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지원을 제공한다.
  - 양육 모(출산 후 3년 이내 양육 모, 단 미혼모는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가능)
-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내부에는 대상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대기실, 상담실, 집단상담실 등 시설을 갖췄으며,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다.

### 〈전담 상담사가 등록-종결 1:1 상담, 온라인·전화 예약〉

-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는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:1 상담을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한다.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 예약(강남센터: 02-2019-4581, 송파센터: 02-6956-6248), 또는 온라인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누리집 ([www.mindcare-for-family.kr](http://www.mindcare-for-family.kr))에서 상담 및 예약하면 된다.

